



스포츠도 예술도 드론이 대세

전주·고흥 등 개발 앞다퉀
학과 개설·사업 지원 활발
드론 축구·공연 등 활용



드론축구에 사용되는 드론(왼쪽)과 드론축구 장면.



〈전주시 제공〉

자치단체들의 드론(초소형 무인 항공기) 마케팅이 치열하다. 농업 뿐 아니라 스포츠와 예술공연 분야까지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 교통 산업의 주역으로 상업적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대학 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평생교육원에서도 드론 학과를 개설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주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스포츠를 접목한 '드론 축구'를 개발하고 기체를 조종할 선수단을 창단했다. 최근에는 드론 축구는 드론 5대가 한 팀을 이룬 뒤 공중에서 비행하다가 링 모양의 상대방 골대에 들어가면 득점하는 방식의 e스포츠로, 전주시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공식대회인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까지 열며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드론을 예술과 접목하려는 시도도 진

행중이다. 드론을 기반으로 한 예술공연 '드론버스킹스'로, 전주시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세부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악에 맞춰 드론 여러 대가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흥은 정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규제 프리존'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같은 지리적 장점을

활용, 전국 최초로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 보급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드론 아카데미 개설, 드론비행체험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산업과학교도 발맞춰 2개학급(학급당 25명) 규모의 드론산업학과를 개설, 운영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전남 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기획연구'라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전남이 고흥만 간척지의 항공센터를 포함한 국

내 최고조건의 비행시험 공역을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인력양성, 시험 인프라 확충 등 무인기 산업을 견인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주시도 종합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을 민간 드론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영암도 지역에 드론전문교육기관이 개설된 것을 계기로 드론조종인력 양성이나 체험시설 확충 등을 구상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마을 묘목 식재 참여자 모집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 최대 1억 지원

"마을회관·노인정에 꽃과 나무를 심으세요."

전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숲 속의 전남 만들기'에 참여할 주민들과 단체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대상은 5인이상 주민 소모임과 비영리 단체이며,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주민 소모임·단체는 묘목과 장비를 지원받아 숲을 조성해 관리하게 된다.

전남도는 4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회관·노인정 등 주민생활공간과 농공산업단지, 버스터미널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주민과 단체는 시·군 산림부서에 사업 목적, 예상 사업비, 사후관리 계획이 포함된 계획서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관·디자인·산림·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수목·비료 등 현물을 기부하는 참가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숲 속의 전남'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231개소를 선정, 이 중 221개소의 숲을 조성했으며 10개소는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조성된 숲은 공모에 참여한 주민·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2015년부터 추진한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 소득과 경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숲이 조성되고 있다"며 "생활 주변 숲을 조성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주시 산책로에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애견인들의 페티켓(Pet+Etiquett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집 귀염둥이"라고 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이웃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는데,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주시가 최근 산책로와 쉼터에 '배변봉투'를 설치한 것도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시는 전주천 생태학습장과 롯데백화점 앞 하천변 야외광장, 아중천 우정신세개야파드 및, 유아2동 주민센터 앞 등 4곳에 배변봉투함(사진)을 설치했다.

시는 이용실적과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배변봉투함을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붕괴 위험 순천 금둔사 계곡 말끔해졌네"

도, 2억 들여 정비·쉼터 조성

침식으로 붕괴 위험에 놓여 있던 순천 금둔사 계곡이 말끔히 단장됐다.

전남도는 보물 945호 삼층석탑을 간직한 순천 금둔사 계곡의 추가 붕괴와 침식을 막기 위한 '금둔사 삼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 계곡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집중호우때 붕괴 위험이 있는 금둔사 대용원 석축과 홍교, 계곡부 사면 등의 긴급 정비에 나섰다.

계곡 침식의 원인인 빠른 유속을 늦추기 위해 낙차공을 설치하고 계곡 바닥 돌붙임, 사면 석축 쌓기로 토석류 유출을 사전 차단해 금둔사 문화재 등 시설물 붕괴를 원천 차단했다. 특히 사찰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계곡 선형 유지, 현장 석재 사용 등을 통해 현장 계곡 형상을 최대한 유

지할 수 있도록 시공했다.

편백 숲길, 한국 전통 방식의 연못, 돌수로 등 정원 조성과 계곡 정비로 사찰의 경관 향상은 물론 사찰을 찾는 신도와 관광객에게 좋은 쉼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둔사 주지 지용선사는 "장마철만 되면 계곡이 허물어져 사찰 홍교와 석축 등 시설물 붕괴가 우려돼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 두다리 뻘고 할 수 있게 됐다"며 "계곡을 전통방식으로 복구하고 연못(방지), 편백 숲길 등을 조성해 사찰 경관과 휴식공간이 기대이상으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로 살수·얼음 배치 등

전주시, 폭염 대비 만전

9월 중순 까지 시행

전주시가 폭염주의보 발령시 말뚝진 도로를 찬물로 식히거나 주요 거리에 얼음을 놔두는 '쿨(Cool)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9월 중순까지 폭염주의보 발령시 주요 노선 11곳에서 하루 3~4차례 살수작업을 벌인다.

또 시민 통행이 많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전주역, 덕진광장, 모래내 시장 등 12개소에 얼음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형 얼음은 오전 10시에 개소당 2개씩 배치하고 살수작업은 낮 최고기온이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진행토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4면 발행 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새만금사업 공사·용역 전북 업체 우대

새만금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전북 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이 마련된다.

1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14일 고시할 예정이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기업을 우대토록 하는 것이다. /권산=박정욱기자 nogusu@

주요 내용은 대형공사 입찰 전에 받아야 하는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조정해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하도급 및 공사용 자재구매 확대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또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지역 기업 배점적용,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 지역 인력 및 자재구매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권산=박정욱기자 nogus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권·전원주택지

- 함평 손골면 월촌리 바다에서 500m 대지 1197㎡ 대형저수지부근 4200만원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896㎡ 전양중을 2억2백
- 급매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사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6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원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원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 352㎡ 주택168㎡ 5억2천
- 원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6백
- 원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영암군 신북면 상업지 2535㎡ 은행4억5천 공사가 매도 5억8천
- 월파면니평 양동 상업지역 367㎡ 주상복합 적합 4억8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참고 적합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원산동 보라아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남평아파트 2천세대 중심지 대지 885㎡ 총당 200평형 공사중 16억5천
- 원산동 4차선과 2차선점 명 129㎡ 월권조 2층상가주택 2억6천
- 충장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상가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 좋음 9억6천
- 원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상가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원산동 농성초교-니평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율령 3천 매도 1억천
- 담보용 고흥군 상업지 254㎡ 공사가 3억5200 은행 2억4천 매도 2천
- 유동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800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광양, ㅅ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